

연구논문

천일재 홍중현의 충주 은거와 은일 의식 「저산록」을 중심으로

이새롭

광주문학관 학예연구, 한시 전공

sae410@daum.net

- I. 서언
 - II. 홍중현의 삶과 『천일재유고』
 - III. 홍중현의 은거 양상과 내면 의식
 - IV. 결론
-

I. 서언

조선 후기 사회는 붕당 정치로 인해 정쟁(政爭)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중 갑술환국으로 남인계 문인들은 정계에서 밀려나 정치적 좌절을 얻었다. 천일재(天一齋) 홍중현(洪重鉉, 1660~1726)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삶의 방향을 은거로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사헌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의 후손으로, 1689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사헌부 지평·대사헌·대사간·영유 현령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1694년에 탄핵되어 경주로 유배되었고, 1년 만인 1695년에 해배되었다.

이후 홍중현은 다시는 관직에 복귀하지 않고 충주로 내려가 은거했다. 충주에서 그는 은거 공간인 천일재를 세우고, 목계를 중심으로 창랑정(滄浪亭)과 충주 인근의 여주와 단양을 유람하며 처사로서의 삶을 보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관직 제수가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거나 사직했다. 젊은 시절 정계에서 촉망받는 관료로 활동했던 그는 정쟁으로 인한 유배를 계기로 세속의 길을 버리고 은거를 선택함으로써 17세기 후반 정치적 격변기 속 문인의 출처(出處) 의식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지식인이 은거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은 당대의 역사와 인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특히 조선시대 문인에게 ‘출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유학자로서의 성리학적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출사(出仕)를 해야 했지만 자신의 수양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문인에게 은거도 실천해야 할 도리였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조선 문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출처 갈등을 시문으로 표출했다. 홍중현의 문집 『천일재유고(天一齋遺稿)』는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은거를 결심하고 실천하던 시기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의 은일 의식과 내면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핵심적인 자료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홍중현

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근기 남인의 시맥이나 호서 지역 문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홍중현의 삶과 시문학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첫 단계로서, 그가 유배 이후 충주로 돌아와 남긴 시문을 중심으로 그의 은거 양상과 은일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천일재유고』는 현재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두 필사본이 전하며, 대부분 은거 이후에 창작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배 직후 충주에서 쓴 시편들을 엮은 「저산록(樵散錄)」은 세상에서 쓰이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자의식, 즉 불우의식에서 비롯된 은거 결심과 그 양상을 가장 선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저산록」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홍중현의 은거 의식과 문학적 형상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중현의 시에 나타난 은일 의식을 살피는 작업은 복잡한 조선 후기를 살았던 문인들의 현실 대응 방식과 내면세계의 일면을 고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인의 문학과 은일 의식을 통해 조선 후기 문예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홍중현의 삶과 『천일재유고』

1. 홍중현의 생애와 충주 은거

홍중현은 본관이 풍산(豊山)이며, 자가 대옥(大玉)이고, 호는 천일재(天一齋)이다. 홍중현은 대사헌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홍만취(洪萬最, 1631~1701)이며, 어머니는 신기한(申紀漢)의 딸 고령신씨이다. 증조부는 예조참판 홍영(洪羹)이고, 할아버지

는 먼친 군수를 지낸 홍주후(洪柱後, 1613~1657)이다. 홍중현은 8형제 중에 넷째 아들인데, 형제들의 이름은 홍중정(洪重鼎, 1649~1694)·홍중태(洪重泰, 1650~1706)·홍중일(洪重鎰, 1657~1684)·홍중경(洪重經, 1662~1710)·홍중원(洪重遠, 1665~1714)·홍중상(洪重相, 1670~1718)·홍중위(洪重緯, 1673~1741)이다. 특히 큰형인 홍중정은 1690년에 문과 급제 이후 사헌부 지평을 지냈기에, 홍중현과 함께 관직 생활을 했다.

홍중현은 1684년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1688년에 삼일제(三日製)에서 장원하고, 1689년에 증광시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되었다. 이어 1690년에 시강원 설서에 배수되고 사서로 승차했고, 1691년에 사간원 정언으로 선발되었다. 이처럼 홍중현은 문과 급제 이후로 관직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이때 쓴 시를 엮어「묘유록(卯酉錄)」이라 했다.¹

그는 1692년에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며, 1693년에 지평으로 자리를 옮기고, 홍문관에 선발되어 들어가 수찬이 되었다가 얼마 뒤 외직인 영유 현령으로 나갔다. 1694년 봄에 다시 부교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천일재유고』 장서각본에는 이때 쓴 시를 엮으면서「청계록(淸溪錄)」이라 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1693년 내가 憲職에 제수되었는데, 그때 일을 제대로 아뢰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해 영유 현령으로 제수되어 7월에 조정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부임하였다. 그러다가 1694년 윤5월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 관직에 재임한 기간은 11달 뿐이었다.²

1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卯酉錄」, “戊辰三月魁節日泮製 特命直赴殿試. 己巳四月唱榜 自是數年之間 出入省闈 卒卒無暇 間有酬唱而類多牽攀. 今於卷首姑錄其一二”.

2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淸溪錄」, “癸酉四月 余忝憲職 有當事不言之失. 六月補永柔縣 令七月辭朝赴縣. 甲戌閏五月 被譴. 在官凡十有一朔”.

홍중현은 1693년에 사헌부를 거쳐 영유 현령에 부임했지만 1년도 재임하지 못한 채 유배를 가게 된 일을 언급했다. 짧은 관직 생활이었지만 홍중현이 선정을 펼쳤기에 그가 사직하고 유배를 가게 되자, 영유현의 백성들이 토산물을 바치며 노자(路資)를 부조했으나 홍중현은 이를 모두 물리쳤다고 전한다.³

홍중현은 사간원에 있을 때 조사석(趙師錫)과 남용익(南龍翼)을 유배 보내라는 계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⁴ 조사석과 남용익의 계청은 1689년에 원자의 명호를 정하는 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남용익을 처벌하라는 계청⁵과 1691년 윤7월 17일에 왕세자 책봉일에 경하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석을 파직하라는 계청을 말한다.⁶ 1년 만에 해배되었지만 이때 홍중현이 얻은 상심은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큰형인 홍중정의 병환이 깊었음에도 병문안을 가지 못했고, 해배된 이후에는 큰형의 부고가 이미 전해져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홍중현의 상황과 감정은 장서각본 『천일재유고』의 「추건록(追愆錄)」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4년 윤5월에 대간의 장계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691년에 내가 정언으로 있을 때, 趙師錫과 南龍翼의 방면을 논핵했던 일 때문이다. 6월에 서교에 이르렀을 때 큰형님의 병이 이미 위독하였으나 감히 성안에 들어가 인사드리지 못하였다. 7월 30일에 월성 배소에 가서 성 동쪽에 있는 아전 최철암의 집에 거주

-
- 3 洪良浩, 『耳溪集』 권27 「弘文館副校理天一齋洪公墓碣銘」, “縣民攀轅號泣 各贈土物助行 公盡却之”.
 - 4 洪良浩, 『耳溪集』 권27 「弘文館副校理天一齋洪公墓碣銘」, “會朝著大變 當路者 以公嘗在諫院 參趙師錫·南龍翼遠竄之啓 追成罪 投慶州”.
 - 5 『肅宗實錄』 15년(1484) 2월 18일, 세 번째 기사.
 - 6 『肅宗實錄』 17년(1486) 윤7월 17일, 두 번째 기사.

하였다. 몸은 바람처럼 떠돌게 되고, 사족들은 별처럼 흩어졌다. 근심과 질병과 온갖 번뇌가 번갈아 찾아왔다. 동경인 경주는 신라의 옛 도읍으로 승경지라 일컬어지지만 비록 때때로 지팡이를 짚고 나가 한 번쯤 즐거움을 얻다가도 이내 다시 사라졌다. 그러니 어찌 시를 지을 겨를이 있었겠는가? 1695년 6월에 가뭄이 심하자 소결이 올라와 상께서 특명을 내려 방면하라고 하셨다. 대간에서 그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한 달을 넘기자 논쟁이 그쳤다. 8월에 비로소 해배가 되었는데 유배된 지 1년이 지난 때였고, 큰형의 부고마저 들은 후라 시를 지을 뜻을 더욱 잃었다. 혹 남쪽의 사우들이 수창할 때가 있으면 그저 슬픔을 토로하는 정도였을 뿐이다.⁷

홍중현은 큰형인 홍중정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성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유배지로 갈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을 서술했다. 유배를 가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큰형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그에게 큰 상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바람처럼 떠도는 신세 [風飄]’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배소인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명승지가 많아 문인들이 즐겨 유람하며 시문을 남겼다. 홍중현 또한 경주의 명승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으나, 자신의 처지로 인해 유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유배지에서 남긴 시가 적을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듬해 8월 해배 명이 내렸으나

7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追愆錄」, “甲戌閏五月 因墓啓遠□□. 蓋於辛未爲正言論□□趙師錫南龍翼放也. 六月抵西郊時 伯氏疾已劇 而不敢入城以訣. 七月到月城配所 住城東吏人崔鐵巖家 一身風飄 舉家星離 憂愁疾病 百慮交攻. 東京舊都 號稱勝地 雖時時擲節 甞得一快 旋復不樂. 又何暇治聲律哉. 乙亥六月 遇早疏決 上特命放釋. 墓諫又爭之 閱月乃停. 八月始放還 在謫凡一周歲 而自聞伯氏訃後 益絕意吟咏. 或值南中士友有所唱和 而特發其悲 既焉”.

이미 큰형 홍중정의 부고를 들은 뒤였으므로, 해배의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을 터였다. 이처럼 그의 유배는 관직에서 물러나고 죄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좌절뿐만 아니라 함께 관직생활을 했던 형을 잃게 된 상실감도 주었다.

홍중현은 해배되자 서울이 아닌 충주의 탄곡(炭谷)으로 낙향했다. 탄곡은 지금의 충주 목계 인근에 있는데, 과거 솥을 만드는 이들이 거주하여 탄촌(炭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홍중현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이때 쓴 시를 모아 ‘저산록(樗散錄)’이라 이름 붙였는데, ‘저산(樗散)’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저력산목(樗櫟散木)’의 줄임말이다.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라는 뜻이지만, 오히려 쓸모가 없기에 오래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많은 문인이 재능 없는 자신을 겸손하게 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홍중현은 관직에서 물러나 충주에 머무는 자신의 처지를 이 말에 건주었다.

홍중현이 충주에 터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 홍만취의 병이 위독해졌다. 이에 잠시 서울 정동(貞洞)에 머물며 병간호를 했고, 1701년 부친이 별세하자 3년상을 마친 뒤 가족을 데리고 충주의 탄곡으로 돌아왔다.⁸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대부분 오래 머물지 않고 사직했다.

풍산홍씨 가문에는 소론계 인물이 많았으나, 홍중현의 외조부는 소북계 인물이었고, 그의 초취(初娶)인 여흥민씨(驪興閔氏)는 인현왕후를 모해한 혐의로 처형된 민언량(閔彦良)·민종도(閔宗道)의 사촌 가문 출신이었다. 홍중현이 교유한 인물들 또한 대체로 남인계였으며, 그의 딸은 이한보(李漢輔, 1675~1748)에게 출가하여 호서 지역의 대표적 근기 남인인 이덕주(李德胄, 1696~1751)·이혜주(李惠胄, 1698~?)·이헌주(李憲胄, 1702~?) 삼형제를 낳았

8 洪良浩, 『耳溪集』 권27 「弘文館副校理天一齋洪公墓碣銘」, “未幾 僉知公 在京第 患風症. 公入城扶護 凡六七年. 以辛巳春 竟遭艱. 公年已衰 而守制無違禮 人以爲難 喪畢. 復歸鄉廬”.

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홍중현은 남인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배 이후, 홍중현은 1721년에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지만 서종하(徐宗廈)에게 갑술옥사 때의 일을 빌미로 탄핵받아 파직되었다.⁹ 또다시 정쟁 속에서 좌절을 겪은 홍중현은 이후 성균관 사예, 사복시 정, 강릉 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고사하거나 사퇴했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중현은 1684년에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 10여 년간의 짧은 관직 생활과 1년 남짓한 유배 생활을 겪었으며, 생의 대부분을 충주 탄곡에서 보냈다. 정범조(丁範祖, 1723~1801)는 홍중현의 묘갈명에서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해 그가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외물(外物)을 따르다가 나 자신을 잃는다면, 비록 그것으로 정승의 자리를 얻는다 해도 나는 달갑게 여기지 않겠다”¹⁰라고 한 것이 곧 홍중현의 뜻이었으며, 이는 세속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홍중현은 순탄할 것만 같았던 청년기를 지나 정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불우(不遇)’하다고 여겼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은자의 모습을 꿈꾸며 자연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바랐다. 이는 그가 충주에서 은거할 당시 지은 시들을 엮어 ‘저산록(槁散錄)’이라 한 것과, 충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공간을 ‘천일재(天一齋)’라 명명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천일재시서(天一齋詩序)」에 따르면, “천하의 드넓은 속에 거주하며 여기에서 나무를 캐고 이곳에서 밭을 갈며 사니 천하의 한명의 한가로운 백성으로 살

9 洪良浩, 『耳溪集』 권27 「弘文館副校理天一齋洪公墓碣銘」, “後十九年 懿陵御極 復授修撰 時當路者修宿憾 復持前事 遂解官”.

10 丁範祖, 『海左集』 권31 「副校理洪公墓誌銘」, “蓋公之意謂身吾有也. 以身循物而失其所以爲身 則雖由此博卿相 吾有弗屑也”.

면 족하다네”¹¹”라고 하며, 그는 이처럼 드넓은 세상 속에서 한가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담아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그가 충주에서 남긴 시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의식을 살필 수 있다.

2. 『천일재유고』 개괄

현전하는 홍중현인 작품은 시 2,000여 수와 산문 약 90편으로, 시문집인 『천일재유고』에 실려 있다. 『천일재유고』는 현재 규장각본과 장서각본 두 종의 이본이 전한다. 두 이본 모두 필사본이며, 별도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고, 편집 체제가 일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편차 내용 등으로 보아 저자가 생전에 정리해 둔 초고(草稿)로 보인다. 다만 홍중현의 묘갈명을 써 준 정범조가 문집의 서문인 「천일재집서(天一齋集序)」도 남겼는데, 이는 홍중현의 묘갈명을 지어 준 뒤에 홍중현의 막내 아들에게 부탁을 받아 써 준 것이다.¹² 홍중현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이므로, 2종의 『천일재유고』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규장각본은 9책으로 시와 산문이 모두 실려 있고, 장서각본은 2책으로 시만 실려 있다. 장서각본 목록에 “詩六十六首, 選二十五首” 등의 표현이 있어, 초본에서 재차 선별하여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의 체제는 다소 복잡하다. 별도의 권차 구분을 두지 않은 불분권(不分卷) 형태이지만, 각 책마다 소제목을 달아 내용을 구분했다. 내용상으로는 1책·3책·4책은 산문이

11 洪重鉉, 『天一齋遺稿』 3책(규장각본) 「天一齋詩序」, “余曰 以渺愁之一身 立天下之大 以蕭然之一屋 居天下之廣 樵採於斯 耕耘於斯 作天下之一間 氓足矣”.

12 丁範祖, 『海左集』 권20 「天一齋集序」, “不佞既撰天一齋洪公牲石之文 而竊慕仰其風槩之凜如也 言議之嶮如也 … 公之季胤寅輔甫 負公遺集 造不佞 請曰 子既銘我先大夫墓 願以所以銘墓者 序先大夫集 爲不朽圖. 不佞謹受而卒業焉”.

표1-규장각본 구성 현황

책	문체	내용	작품 수
1	산문	「祭柳判府事文」, 「天一齋上樑文」 등 1690~1710년까지의 제문 및 기문·상량문을 포함한 산문	35편
2	시	四郡 유람시인 「三島記興」를 비롯하여 1700년대 초 충주 우거 시기 한시	약 168제
3	산문	「記蒙辭悼亡友閔季祥錄呈士會令公郭山謫所」, 「天一齋詩序」의 서문 및 제문	27편
4	산문	「家姪一輔登第詩序」, 「庚子立春箴」 등 1720년대 전후 산문	27편
5	시	「丙申元日」의 1716~1717년 전후에 창작한 시	약 97제
6	시	「甲辰元日次季毅除夕韻」의 1724~1726년에 창작한 시	약 145제
7	시	「樗散錄序」를 포함하여 1695년 해배 이후 충주에 은거하며 쓴 「樗散錄」에 해당하는 시와 서문	약 135제
8	시	「耳順錄」으로 61세 이후에 창작한 시	약 166제
9	시	1712~1714년에 창작한 시	약 146제

고 나머지는 모두 시이다. 또한 전체적인 편집 순서가 뒤섞여 있는데, 시만 놓고 보면 7책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작품의 편차를 시기 구분 없이 산재된 자료를 모아 합친 것으로 짐작된다. 시를 창작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7책-2책-9책-5책-8책-6책 순이다. 규장각본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산문이 실린 1책, 3책, 4책 또한 문체나 창작 시기순으로 편집되지 않았다. 각 책의 주목할 만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1책에는 충주 은거처인 천일재를 지으며 쓴 「천일재상량문(天一齋上樑文)」과 사군(四郡)을 유람하고 쓴 「유구담도담시서(遊龜潭島潭詩序)」가 실려 있다. 3책에 수록된 아우의 정자에 대한 기문인 「송남정사기(松南精舍記)」와 자신의 시집에 대한 서문인 「천일재시서(天一齋詩序)」는 그의 문학관이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4책에서는 환갑을 맞아 쓴 「경자원조송(庚子元朝頌)」과 여동생을 위해 지은

「제씨영인풍산홍씨행장(姊氏令人豊山洪氏行狀)」을 비롯한 가족의 제문 및 행장이 주를 이룬다.

수록된 시는 대부분 해배 이후의 작품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해배 직후 충주에서 은거하며 쓴 「저산록(樵散錄)」, 사군(四郡)을 유람하고 지은 「삼도기흥(三島記興)」, 그리고 61세에 지은 시를 모은 「이순록(耳順錄)」 등이다. 이처럼 관직 생활 중에 창작한 작품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충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다. 특히 시를 짓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서문으로 밝힌 점과 아우 홍중상(洪重相, 자: 季瞻)·홍중위(洪重緯, 자: 季毅)와 주고받거나 함께 유람하며 지은 시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서각본은 규장각본에서 시만 따로 선별해 엮은 시집이다. 표제는 ‘천일재집(天一齋集)’, 권수제는 ‘천일재문집(天一齋文集)’으로 되어 있다. 총 2권 2책이며, 일부 수정한 흔적이 보여 규장각본의 교정본으로 짐작된다. 각 시집의 제목 앞에는 원본에서 선별한 수를 밝혀 두었다.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묘유록(卯酉錄)」 25수, 「청계록(淸溪錄)」 30수, 「추건록(追愆錄)」 9수, 「저산록」 1 5수, 「저산록」 2 18수, 「저산록」 3 4수, 「삼도기흥(三島記興)」 8수, 「천일만음(天一漫吟)」 172수, 「이순록(耳順錄)」 40수 총 310제가 실려 있다. 그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장서각본은 각 편의 제목에 “詩六十六首, 選二十五首”와 같이 표기하여, 원본에서 일부만 선별했음을 밝혔다. 「묘유록」은 전체 66수 중에서 25수만을, 「청계록」은 40수 중 30수, 「추건록」은 52수 중 9수, 「저산록」 1은 46수 중 5수, 「저산록」 2는 130수 중 18수, 「저산록」 3은 56수 중 4수, 「삼도기흥」은 30수 중 8수, 「천일만음」은 1,200수 중 172수, 「이순록」은 483수 중 40수를 선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홍중현이 본래 총 2,104수의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천일만음」은 규장각본에서 9책에 해당하는 작품이 많이 실려 있으며 은거 생활이 완전히 정착된 뒤의 충주에서의 일상을 담은 작품이다.

표2-장서각본 구성 현황

권차	편명	내용	작품 수
1	卯酉錄	1689년 관직 생활 중에 쓴 시	25
	淸溪錄	1753~1754년 영유 현령에서 쓴 시	30
	追愆錄	1694년 갑술환국으로 유배 간 뒤, 해배하기 이전까지 쓴 시	9
	樗散錄1	해배 직후 충주에 은거하며 쓴 시	5
	樗散錄2	1697년 이후 충주 탄곡에 은거하며 쓴 시	18
	樗散錄3	부친의 병간호를 이유로 정동에 갔다가 상을 치른 후 1703년에 재차 탄곡에 내려와서 쓴 시	4
	三島記興	1704년 사군을 유람하며 쓴 시	8
2	天一漫吟	천일재에 머물며 쓴 시	172
	耳順錄	61세 이후에 쓴 시	40

규장각본에 해배 이후 창작한 시만 실은 것과 달리, 장서각본에는 「묘유록」, 「청계록」, 「추건록」이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그의 관직 생활 중 작품은 물론, 경주 유배 시기의 삶과 내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편집 순서가 창작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편집 체제가 비교적 잘 정리된 장서각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필요에 따라 규장각본을 참조하고자 한다.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산록」은 다른 시록에 비해 수록된 작품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저산록」이 창작된 시점은 홍중현이 유배에서 풀려난 직후, 즉 은거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비록 적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해배 직후의 내면적 전환과 은거를 향한 다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들이 담겨 있으며, 홍중현의 출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관련 작품들은 그의 은거 생활인 안정된 시기에 지은 「천일만음」이나 「이순록」의 세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천일재유고』의 서문을 남긴 정범조는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해 “때를 잘 만

나도 구차하게 동조하지 않았으며, 뜻을 잃어버리거나 기개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행동함에 순수하기가 그와 같았습니다”¹³라고 평가했으며, “공께서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환로가 막 열렸으나, 도리어 강개한 기개를 품고 시속(時俗)에 따라 기꺼이 굽히지 않았습시다. … 유배지나 은거하며 지은 시에도 전혀 초취하거나 낙심한 기색이 없습니다”¹⁴라고 했다. 정범조는 홍중현을 순탄한 길을 걷다 한순간에 유배를 갔음에도 호연지기를 잃지 않고 세속에 굴하지 않았으며, 대인의 도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러한 홍중현의 삶의 태도와 의식이 시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저산록」은 10년 남짓한 시기의 시를 담은 시집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를 넘어 그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던 결정적 시기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후반기 삶과 문학 세계의 초석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자료라고 본다.

Ⅲ. 홍중현의 은거 양상과 내면 의식

1. ‘불우’ 의식에서 ‘자족’으로의 변모

홍중현은 충주로 은거하며 지은 시들을 묶어 ‘저산록(樵散錄)’이라 이름 붙였다. 앞서 언급했듯, 『장자』에 나오는 쓸모없는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그 ‘쓸모없음’ 덕분에 역설적으로 제명을 다하며 오래 살 수 있었다. 홍중현

13 丁範祖, 『海左集』 권20 「天一齋集序」, “遭時而不苟同 矢志而不隕獲 始終行己之粹如也”.

14 丁範祖, 『海左集』 권20 「天一齋集序」, “公擢高第 登顯仕 晉塗方闢 而顧負氣忼慨 不肯與時俗俯仰. … 澤畔之吟 田居之賦 絕不作憔悴落拓語”.

은 정쟁에서 밀려난 자신의 처지를 이러한 ‘쓸모없음’에 빗대었다. 이는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불우의식이 짙게 배어 있는 표현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쓸모없었기’에 세상에 바라는 바나 업매임도 없이 정신적 은일과 자유를 택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유배와 파직과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 충주에서 자신의 천명만큼 살 수 있는 것이다. 장서각본에 수록된 「저산록」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 가족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장주가 말한 산목이다. 산목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쪽 외곽 마을에 우거하며 세상에 구하는 바도 없고,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또한 자연의 이치이다.¹⁵

㉡ 나는 1697년 3월에 가족을 이끌고 충주로 돌아왔다. 배를 타고 목계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다. 火谷과 炭谷은 목계의 동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아마도 옛날에 숲을 굽던 사람들이 살았기에 마을의 이름이 된 듯하다. 산은 마을을 감싸고 바위 골짜기는 아늑하며 바위와 동굴은 깊고 그윽하니, 참으로 번잡함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었다. 나는 집을 빌려 머물기로 하였는데 쭉대로 뒤덮여 있고 사방의 산은 고요하기만 했다. 멍하니 앉아 있으니, 내 마음의 바깥 경계를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때때로 산봉우리에서 피어나는 구름이 제멋대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집 앞을 흐르는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북쪽 창문으로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 처마에는 밝은 달이 걸리니, 이 또한 나의 정신을 기르고 편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5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樗散錄」 1, “夫樗也 櫟也者 莊周所謂散木也. 以散木而得全 是自然之理也. 余以散人 寓居南郭 既無求於世 又無責於人. 以散人而得全 是亦自然之理也”.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때마다 시를 읊었고, 읊을 때마다 여기에 기록한다.¹⁶

㉔ 1701년 3월에 상을 당하여 정동의 옛집에서 상복을 입고 지냈다. 1703년 6월 13일에 가족들을 이끌고 탄곡으로 왔다. 폐허가 된 지 오래라 시를 읊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때때로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있을 때면 여기 권말에 써두었다.¹⁷

인용문 ㉔은 해배 직후 홍중현이 탄곡에 머물며 지은 시를 엮은 「저산록」의 서문이다. 여기서 홍중현은 자신이 쓸모없기에 오히려 세상을 향한 ‘책임’, 즉 입신양명하여 군주를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세상에 쓰이지 못하기에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이 덕분에 다른 이들과 달리 홍중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명리(名利)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은둔의 의지를 보여 준다. 특히 이 시기 장서각본 『천일재유고』에 만시(輓詩)가 유독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대형 홍중정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잇따른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처지를 더욱 자조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㉕에는 1697년 가족을 이끌고 충주로 온 뒤 시작된 본격적인 은거 생활의 모습을 담겨 있다. 인용문 ㉔이 자신의 처지와 삶에 대한 태도를 역설한 것이라면, ㉕은 실제 거주 공간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은거 문인의 전형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출처(出處) 문제로 갈등하던 문인들은 시문에서 불우한 자신을 직접 드러

16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樗散錄」 2, “余於丁丑三月 挈家歸忠州. 御舟木溪而入之火谷炭谷在木溪東十里 蓋古作炭者居 而因為村之名. 山回谷抱 巖洞深幽 眞厭煩好靜者所居. 余議僦屋而寓 一室蓬蒿 四山寂寞. 嗒然而坐 心境俱忘. 時見出岵之雲 卷舒無常 達宅之溪 潺湲有聲. 北牕清風 南簷皓月 亦足以怡養精神. 遇景輒吟 吟輒寫此”.

17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樗散錄」 3, “辛巳三月 遭艱守制貞洞舊家 癸未六月十三日 携家抵炭村 久廢之餘 無意吟咏 而時時牽率 寫此卷末”.

내기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경향이 있다. 홍중현 또한 표면적으로 자신의 은거를 자신의 ‘불우’ 때문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 삶’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다만 그는 표면적인 명분에 그치지 않고 자연 속 한가로움 삶을 통한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 삼았는데, 이 시기 홍중현은 은거처인 천일재와 충주 목계의 명소인 창랑정은 물론이고, 인근의 여주 청심루(淸心樓)와 신록사(神勒寺) 등을 유람하며, 여러 형제 및 친인척과 시문을 수창한 사실에서 그러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인용문 ㉔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충주로 돌아온 시점의 기록이다. 홍중현은 가족의 상실을 겪은 자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황폐해진 나머지[久廢之餘]’에 빚대며, 더 이상 자연을 즐기거나 시를 읊을 감흥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홍중현의 은거 과정에 나타난 태도는 조선 시대 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은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느끼는 ‘불우의식’과 ‘귀거래(歸去來)’의 이상을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얻는 ‘자족(自足)’이 순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만 홍중현은 ‘유배’로 좌절하던 시기에 가까웠던 큰형과 부친을 비롯하여 가까운 가족을 잃었고, 함께 관직 생활을 한 이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상실감이 더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그의 작품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상자 속에서 큰형의 시를 발견하고, 따라 차운하였다」

지난 1691년 동짓달, 못난 아우는 司書로서 춘방에 근무했고 큰형님은 한림으로 속직하셨다. 당시 永川에 있던 李日井 子夏공께서 玉堂으로 들어오셨고, 權敬子馨공께서는 이조에서 승정원으로 옮겨 銀臺에 계셨다. 한 달 동안 밤마다 서

18 예컨대, 창랑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滄浪齋記」, 「木溪滄浪亭有沈一松題詠韻載之集中沈承旨直夫來寓於滄浪亭下和其韻余亦和之」, 「過滄浪亭記感」 등이 있으며, 여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는 「淸心樓」, 「過淸心樓用已卽歲與毅弟舟行唱酬韻」 등이 있다.

로 어울렸으며, 한가할 때면 시를 주고받았다. 큰형의 시는 小謝의 시처럼 맑아
화윤할 만한 구절이 있다고들 했으나, 마침 내가 눈병을 앓아 화윤한 시를 드리
지 못하였다. 5~6년이 지나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큰형은 불행히 세상
을 떠나셨다. 이공과 권공 또한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나만 홀로 살아남아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완고히 지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연히 상자를 열어보니
형님의 遺墨이 완연하여, 아우는 눈물 흘리며 그 운을 뒤따르니 이 슬픈 마음을
담는다.

우애 깊던 형과 이별한 뒤 눈물 흘리며	姜衾一別淚珠推
상자 속의 유묵 차마 어찌 열어 보리오?	篋裏遺篇豈忍開
적막한 봄 풍광에도 못 주윈 사늘하고	寂莫春光池上冷
어렴풋한 그 모습 꿈속에서나 찾아오려나	依稀顏面夢中來
은혜 입어 함께 대궐 가던 때 떠올리니	承恩尙憶同趨陛
함께 마시다 홀로 술 마시니 어떤 마음인가	對酒何心獨把杯
하물며 이웃 사람 있어 피리 부나니	更有隣人解吹簫
옛 일들 영락해져 부질없이 고개만 돌리네	舊遊零落首空回 ¹⁹

시의 제목 및 서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난 형의 시를 발
견하고 그에 차운(次韻)한 것이다. 서문에 언급된 이일정의 몰년(沒年)이
1696년이므로, 시는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는 단순히 형

19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篋中得伯氏韻追次[并序]」, “住在辛未至月 不肖弟以司
書直春坊 伯氏以□□林在下番. 李子夏令公日井自榮川入玉堂 權子馨令公歆遞吏部拜銀墓. 浹
月持被 趁日過從 調浪之餘 間有酬唱. 伯氏詩有小謝清篇更和回之句 而弟於其時 適以阿睹之病
未克和呈. 五六年來 人事大變 伯氏已不幸 李令權令俱作泉下人 此生之飽喫風霜 獨此宛然者
抑何故耶. 偶閱箱篋 遺墨宛然 涕泣追次 以寓悲悼之心”.

을 향한 그리움만을 담고 있지 않다. 형이 시를 지었던 1691년에 홍중현은 정언을 거쳐 사서(司書)로 부임했고, 홍중정은 사관을 거쳐 상변 한림(上番翰林)이었다. 권흠은 이조 참의를 거쳐 승지가 되었고, 이일정은 수찬이 되었다. 이들은 함께 교유하며 관직 생활의 좋은 시절을 보내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유배에서 막 풀려난 상황이다. 상자 속에만 남은 형의 시는 행복했던 과거와 고독한 현재를 잇는 매개체이기에, 홀로 남은 심정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다.

시는 홀로 남은 처지를 부각하며 떠나간 이들, 특히 큰형을 향한 짙은 그리움을 드러낸다. 첫 구의 ‘강금(姜衿)’은 후한(後漢)의 강굉(姜肱) 형제가 우애가 깊어 큰 이불을 만들어 함께 덮고 잤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것처럼 우애 깊던 형은 이제 세상에 없고, 남겨진 유묵조차 차마 펼치기 어려운 처절한 슬픔을 토로한다. 이는 함련으로 이어져,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풍경과 ‘적막함’, ‘싸늘함[冷]’의 이미지를 대조시킨다. 봄이라는 계절이 역설적으로 시적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하는 장치로 쓰인 것이다.

경련에서는 함께 대궐에 들던 때와 함께 술 마시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홀로 술잔을 드는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움을 강조했으며, 미련에서 들려오는 서글픈 피리 소리는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어 모든 즐거움이 스러진 채 홀로 남았다는 고독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특히 ‘이웃 사람이 부는 피리소리[隣人解吹簫]’는 죽림칠현의 ‘산양적(山陽笛)’의 고사를 환기시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강조된다.

장서각본 『천일재유고』의 「저산록」¹에는 위 인용시와 함께, 양강(楊江)을 지나며 권흠을 그리워하는 시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해배 직후 홍중현의 내면에는 세상과 어긋난 불우의식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자’의 깊은 고독이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깊은 고독과 불우의식은, 1697년 충주에 정착한 이후 점차 자연 속

에서 위안을 찾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로 변화해 간다. 그 변화의 과정이 「술회(述懷)」라는 작품을 통해 확인된다.

나그네 심사 늦었음에 상심하고	羈懷傷婉晚
세상일은 갈수록 어긋났네	時事轉參差
도잠처럼 벼슬 그만두지도 못하고	未解陶潛組
초택에서 이소를 먼저 읊조렸네	先吟楚澤離
더위에도 먼 곳으로 달려와서	衝炎趨絕國
말 멈추고 친지와 이별했다네	住馬別親知
성문 밖은 지척이기에	咫尺脩門外
한수 물가 끝에서 배회하였다네	徊徬漢水湄
...	
아득한 마음은 세상 밖 노닐고	遐心游物表
귀거래의 꿈에 강가로 낙향했네	歸夢落江涯
산 의지해 작은 집 터를 잡고	小築依山占
외로운 배 언덕 옆에 매어 두었네	孤舟傍岸維
맑은 그늘 소나무와 전나무고	清陰松與栝
아름드리 나무는 대추나무와 배나무라	嘉樹棗兼梨
오솔길은 푸른 이끼에 뒤덮였고	逕轉蒼苔沒
닫힌 문엔 푸른 버들이 드리웠네	門閑碧柳垂
...	
동산에서 오랜 계획을 함께하니	丘園偕宿計
태평성대 관직 이제 사양했네	簪級謝明時
호쾌하게 천 잔의 술 기울이고	快倒千鍾酒
길게 만 수의 시 읊조릴 뿐이네	長吟萬首詩

인생은 길어야 백 년인 것을

人生百年內

천명이 곧 낙이라네

天命樂溪疑。²⁰

인용된 시는 홍중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요약한 100구의 장편시로, 그의 영광과 좌절, 상실과 은거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시의 서두에서 그는 본래 자신은 자연(丘壑)을 좋아하고 재주가 부족했다며,²¹ 자신이 본래 자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후 형제들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며 영광을 누렸던 과거를 회상한다.²²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세상과 도(道)가 어긋나 유배를 가게 된 처지에 이르렀음을 토로한다.

인용된 부분에서 홍중현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긴 도잠(陶潛)처럼 소신에 따라 관직을 그만두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결국 정쟁에 휘말려 굴원(屈原)처럼 유배길에 오르게 된 자신의 처지를 그렸다. 특히 그는 유배를 떠나는 길, 성문 밖 지척에서 큰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던 애끓는 심정을 묘사했다. 여러 시문에서 반복적으로 밝혔듯, 의지했던 큰형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기억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던 까닭이다.

이후 충주로 돌아온 그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그린다. 다른 부분에 비해 충주의 경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충주의 자연이 자신에게 깊은 안위를 주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시의 말미에 이르러 그는 자연 속의 은거야말로 자신의 오랜 계획이자 최종 지향점임을 분명히 한다. 벼슬을 사양하고 남은 생을 자연 속에서 술과 시를 벗 삼아 살아가겠다는 것

20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述懷」.

21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述懷」, “雅性存丘壑 慵踈百不宜. 才猷殊賈董 志業謝臯夔. 辭愧雕虫拙 名非附驥馳”.

22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述懷」, “主渥聯芳棣 家聲倚白眉”.

이다. 그는 짧은 인생이기에 하늘이 내린 분수를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라 말하며, “사는 곳 외지니 기심 모두 사라지고, 몸 한가로우니 세상사에 얽매임 없네[境僻機全息 身閑迹不羈]”라고 노래했다. 충주에서의 은거를 통해 그는 불우의식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을 얻은 것이다. 이는 조선조 문인의 은일의 이상향에 도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홍중현은 은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불우의식에서 자연 속의 자족까지 자신의 의식이 변모를 진솔하게 드러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술회」는 정쟁으로 인한 좌절과 자조에서 시작하여 자연 속 안분지족의 삶을 거쳐, 세속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은거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의 내면적 변모를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홍중현은 ‘은거’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속세와 온전히 거리를 두게 된다. 충주 은거 이후인 1721년, 잠시 관직에 나아갔다가 또다시 탄핵을 겪은 뒤로는 제수된 모든 관직을 사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홍중현의 은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는 유배 이후 느낀 불우의식과 동지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자의 자조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삶을 성찰하며 정신적 안정을 찾아가는 길을 걸었다. 이를 통해 그의 충주 은거는 현실 도피를 넘어, 안정적인 삶의 대안을 찾아 나선 적극적인 실천의 단계로 나아갔다.

2.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지향

홍중현의 은거는 문집 편명 ‘저산’처럼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는 ‘불우’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자연 속에서 자족하는 전형적인 처사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 충주에서의 은거가 길어질수록, 「저산록」에 수록된 시들 또한 점차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 속의 한가로움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을 노래하

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문인들의 은거의 이상적인 형태이며,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홍중현은 자신의 은거에 ‘나’를 제외한 외물에 구애받지 않음을 최우선적으로 두었다. 외물에 구애받지 않은 ‘나’와 이상적인 은거는 외물, 곧 속세나 타자화된 사물과 대비되는 자연에서 어우러진 모습이어야 했다. 정범조의 서문에서 언급하다시피 외물에 얽매이는 순간 속세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산가에서의 여름날」

은거의 참된 흥취 알려면	欲識幽居趣
뜰에 가득한 저 풀을 보시게나	看他草滿庭
처마로 다가온 구름 하얗고	近簷雲影白
문에 드리운 나무그늘 푸르네	低戶樹陰青
낮에도 고요해 낮잠 평안하고	晝靜眠常穩
바람 맑아 술 깨기 쉽다네	風清酒易醒
속세엔 얼마나 많은 일들 있은들	塵寰多少事
이곳에선 전혀 들리지 않다네	從此聞無聽. ²³

시의 전반부는 충주 은거처의 소박한 풍경을 묘사한다. 특히 2구는 ‘뜰에 가득한 풀’을 보라고 말하며, 은거의 참된 즐거움이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자연의 본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가치를 제시한다. 그 즐거움이란 뜰의 풀, 처마의 흰 구름, 문에 드리운 푸른 나무 그늘처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지는 것임을 보여 준다.

후반부는 그러한 자연 속 은자의 평화로운 삶을 그린다. 속세와 멀어져

23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山家夏日」.

고요하기에 낮잠은 편안하고, 맑은 바람 덕에 술을 마셔도 머리가 쉽게 맑아진다. 마지막에는 속세의 시끄러운 일들이 이곳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 얻은 마음의 고요함과 은일의 경지를 노래했다.

이처럼 홍중현은 자연 속에서 안일(安逸)을 누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향점은 그가 충주에 마련한 거처 ‘천일재(天一齋)’의 존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홍중현은 「천일재시서(天一齋詩序)」에서 지명의 ‘탄(炭)’자를 쓰지 않고 굳이 ‘천일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은거의 의미를 드러냈다.

탄곡은 큰 강과 10리쯤 떨어져 있는데, 옛날 숲 만들던 이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전해진 듯하다. … 마을 좌우로 산기슭이 십여 리에 걸쳐 뻗어 큰 하천을 감싸고, 마을 남쪽에는 푸르고 울창한 산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다. 마을 한 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시내는 정원 뒤를 돌아 서쪽에서 큰 하천과 합쳐져 강으로 들어간다. 산은 높아도 험하지 않고 골짜기는 깊으나 좁지 않다. 험하지 않으므로 땀나물을 캐기 편하고, 좁지 않으므로 밭 갈기에도 좋다.²⁴

이 글은 홍중현이 자신의 은거처인 탄곡과 천일재 주변의 풍광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는 푸른 숲과 시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 주면서도, “땀나물을 캐기 편하고 밭 갈기 좋다”라고 하여 이곳이 단순한 완상(玩賞)의 공간을 넘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살기 좋은 곳’임을 강조한다. 이어

24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3(규장각본) 「天一齋詩序」, “炭坊距大江十里 盖古作炭者居 而回爲村之名焉. … 村之左右麓線亘十餘里 俱挾大川 村之南有一峯聳立 蒼翠蔚然. 村之中有小溪潺潺 回園後 繞屋而流 折而西合于大川 入于江. 山高而不險 洞深而不隘. 以其不險也 故便於樵採 以其不隘也 故樂於耕耘”.

커다란 회화 나무가 무성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버드나무가 있어 마을의 늪은이들도 유상하며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곳임을 말했다.²⁵ 그에게 은거처인 탄곡은 속세와 단절된 자연의 아름다움과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인 것이다.

이어 홍중현은 문답법을 통해 자신의 거처를 왜 ‘천일재’라 이름 지었는지 설명한다. 가상의 손님(客)은 ‘탄(炭)’이 불[火]이고 ‘천일(天一)’이 물[水]이니 수화(水火)의 조화를 위함인지, 혹은 『장자』의 구절 ‘고요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乃入於寥天一]’에서 따온 것인지 묻는다.²⁶ 홍중현은 둘 다 아니라고 답하며, 구양수가 자신의 호를 ‘육일거사(六一居士)’라 지은 예를 든다. 구양수는 책, 금석문, 거문고, 바둑, 술이라는 다섯 가지에 늪은 자신을 더해 ‘육일’이라 칭했다. 그러나 홍중현은 구양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다섯 가지는 모두 사람의 마음을 얽매는 외물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외물이니, 외물이 곧 내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내가 곧 외물이거늘, 어찌 외물에 얽매이겠는가? 나는 강산의 빼어남과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니, 이곳은 본디 천하제일의 명승지이다. 오래된 회화나무와 한 그루 버드나무가 있는데, 또한 천하제일의 아름다운 나무라 할 만하다. 내 어찌 서재의 이름을 ‘천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아득한 시름에 잠긴 이 몸이 천하의 광대함 속에 서 있고, 쓸쓸한 작은 집 하나를 천하의 드넓은 공간에

25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3(규장각본) 「天一齋詩序」, “庭有一古槐幾十圍 詢之古老 不知其幾年 而童童一蓋 可庇三四十人. 循溪而上數十步 有一柳枝葉繁茂 時與村翁野老 逍遙於其下 濯清風而蔭夕陽”.

26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3(규장각본) 「天一齋詩序」, “子惡村之名炭耶 天一水也 而齋名天一 夫炭出於火 故子之意 欲水火交濟之義耶. 曰否. 客又莊子曰 入於寥天一 子將乘雲氣駕飛龍 與造物者遊於四海之外耶. 曰否”.

두었다. 여기서 나무 캐고 밭 갈며 사니, 천하의 한 명의 한가로운 백성으로 살면 족하다.²⁷

구양수가 말한 다섯 가지는 훌륭하지만, 자칫하면 사람을 얽매이게 하여 자유로운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한다. 홍중현은 그 대신, 자신이 거처하는 이곳의 자연이야말로 ‘천하제일’이라 말한다. 이는 과장된 자부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홍중현에게 ‘천일재’란 ‘천하제일의 명승지를 소유했다’라는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천하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누리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름이다.

이러한 사유는 「저산록」 서문에서 “내 마음 바깥의 경계를 모두 잊을 수 있었다”라고 한 것과 이어진다. 이는 자연 속에서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그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 장서각본 『천일재유고』의 편집 방식 또한 그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단양 유람 이후 시기의 시를 「천일만음」으로 배치하고 「천일재시서」를 「천일만음서」라고 한 것은 그의 은일 정신이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하 속의 한 존재’로서의 자족감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목계의 滄浪亭에는 一松 沈喜壽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承旨 沈季良 直夫가 창랑정 아래에 머물면서 그 운에 화답하였기에 내가 그 시에 화운하였다」

27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3(규장각본) 「天一齋詩序」, “此五者皆物也 物是我也. 我是物也 且惡乎役於物哉. 余則樂此江山之好 兼有洞壑之美 此固天下之第一勝地. 至於一古槐一垂柳 亦曰天下之第一嘉樹 余之齋不曰天一可乎. … 以渺愁之一身 立天下之大 以蕭然之一屋 居天下之廣. 樵採於斯 耕耘於斯 作天下之一閒氓足矣”.

평평한 모래밭은 강가에 펼쳐져 있고	平沙臨水際
높은 누각 산끝을 베고 섰네	高閣枕山頭
푸릇 푸릇하고 날 갠 여름 하늘 지나	草碧天晴夏
강 텅 비어 낙엽지는 가을이라네	江空木落秋
나룻가의 객 한가하거나 바쁘고	閑忙津上客
강변의 배는 왔다가 떠나간다네	來去岸邊舟
발 씻으며 창랑정의 흥취에	濯足滄浪興
때때로 물가의 백로도 찾는다네	時牽白鷗洲 ²⁸

홍중현이 은거한 탄곡은 목계와 가까워 그는 종종 창랑정을 찾아갔다. 일송(一松)은 심희수(沈喜壽, 1548~1622)를 의미한다. 한가로운 창랑정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은일(隱逸) 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어부사(漁父辭)」의 고사,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를 인용하여 세상의 혼탁함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군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이처럼 「저산록」의 시들에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고 세속과 거리를 조율하며 살아가는 은거 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더 이상 외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과 일치한다. 홍중현은 자연에 거주하며 단순히 탈속(脫俗)의 의지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순리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했다.

28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木溪滄浪亭 有沈一松題咏韻載之集中 沈承旨直夫來寓於滄浪亭下 和其韻余亦和之」.

「지일」

홀로 산속에 내린 눈 보니	獨對山中雪
땅속 천둥소리 놀랍다네	翻驚地底雷
사창에는 가는 실 더 늘어난 듯	繡窓添弱線
가관에는 날리는 재 움직이네	葭館動飛灰
천심 회복됨 시험삼아 취하고	試取天心復
物理가 돌아옴을 바라보네	看他物理回
북쪽 늙은이의 기심 사라져	北翁機已息
그윽한 흥취 겨울 매화에 부치네	幽趣寄寒梅. ²⁹

이 시는 ‘동지(冬至)’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은거 중의 심리적 관조를 드러낸 작품이다.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면, 역설적으로 양(陽)의 기운이 회복되며 만물의 변화가 시작된다. 시인은 2구에서 이를 땅 밑에서 우리가 치는 형상의 지뢰복괘(地雷復卦)에 빗대고, 함련에서는 두보의 시에 “수놓는 오색 무늬 옷감에는 가는 실이 더 늘어나고, 갈대의 재 채운 여섯 관에는 날리는 재가 들썩거리네[刺繡五紋添弱線 吹葭六管動飛灰]”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동지의 변화를 묘사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 만물과 천심(天心), 즉 우주의 이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시인은 자신 또한 세속적 욕망인 기심(機心)을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밝힌다. 이제 그는 속세와 완전히 떨어져, 그저 자연의 변화를 깨닫고 그 속에서 얻는 그윽한 흥취에만 몰두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홍중현에게 충주에서의 은거는 세상을 등진 도피나 자연에 대한 완상(玩賞)의 대상을 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은자로서 자신의 수양임을 알 수

29 洪重鉉, 『天一齋遺稿』 권1(장서각본) 「至日」.

있다. 그가 스스로의 삶을 ‘천하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 속에 깃들여 사는 일’로 규정했듯, 자연 속 은거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적 자족에 이르러갔던 것이다.

IV. 결언

이 글은 갑술환국으로 유배를 간 이후 은거의 삶을 선택한 천일재 홍중현의 삶과 문집 『천일재유고』를 소개하고 그의 은거 양상과 은일 의식의 변모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그의 문집 『천일재유고』, 특히 은거 초기의 기록인 「저산록」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면밀히 분석했다.

홍중현의 은거는 촉망받는 관료로서의 삶이 정쟁으로 인해 좌절된 후 선택한 길이었다. 유배지에서 겪은 큰형의 죽음과 가문의 풍파는 그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세상에 대한 회의를 안겨 주었다. 그가 자신의 첫 은거 시문집을 ‘쓸모없는 나무’라는 뜻의 ‘저산(樗散)’이라 이름 붙인 것은,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불우 의식’과 함께 남겨진 자의 고독과 자조가 깊이 내재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에서 쓰이지 못한 불우의식 속에서 오히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자족의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은거처인 충주의 자연은 그에게 단순한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수양의 장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홍중현의 은거는 정치적 좌절에서 비롯된 소극적 은둔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를 치유하고 ‘외물’로부터의 얽매임을 거부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내면의 평정으로 과정이었다. 곧, 정치적 좌절에서 내면적 성숙

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와 인식은 조선 조 출처 갈등 속에서 은거를 택한 문인들의 전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여 주면서도 홍중현만의 개성적인 사유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 시적 형상화가 드러난다.

이 글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홍중현이라는 문인을 발굴하고 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함으로써, 17세기 후반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한 지식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정립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삶과 문학은 조선 후기 은일 문학이 단순한 강호 한정 의식의 표출을 넘어, 정쟁 등의 외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완성해 나가려는 과정의 기록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丁範祖, 『海左集』, 한국문집총간본.

『豐山洪氏大同譜』.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본.

洪重鉉, 『天一齋遺稿』, 규장각본.

洪重鉉, 『天一齋遺稿』, 장서각본.

2. 논저

김영민, 「英·正祖代 豊山 洪鳳漢家門의 부흥과 분열」, 『사학연구』 100, 2010, 139~177쪽.

나영훈, 「숙종 초 근기남인의 정치적 논쟁과 대립」, 『조선시대사학보』 105, 2023, 357~400쪽.

윤재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서울: 문예원, 2012.

윤호진, 「慕堂 洪履祥의 삶과 詩世界」, 『한문학보』 21, 2009, 239~293쪽.

원창애, 「儒臣 홍이상의 학업과 관직 생활」, 『열상고전연구』 42, 2014, 155~197쪽.

이군선, 「豊山 洪氏 門中の 家門意識: 洪良浩와 洪敬謨를 중심으로」, 『한문교육론집』 43, 2014, 467~502쪽.

심경호·윤재환·유명석·채지수·맹영일·김효정·권진욱, 『조선 후기 근기 남인 가문의 시 문학적 계승과 변용』, 서울: 학자원, 2024.

국문초록

이 글은 천일재(天一齋) 홍중현(洪重鉉, 1660~1726)의 충주 은거와 그 시문을 고찰하여, 그의 은거 양상과 은일 의식의 변모 과정을 그의 시문학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그의 문집인 『천일재유고(天一齋遺稿)』 중 은거 초기의 작품을 모은 「저산록(樗散錄)」을 중심으로 그의 내면 의식 변화 과정을 추적했다.

갑술환국 이후 해배된 홍중현은 관직에 복귀하지 않고 충주로 내려가 천일재를 짓고 은거했다. 그의 문집 『천일재유고』는 해배 직후부터 은거 시기에 이르는 시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좌절 이후의 내면 변화와 은거 의식의 전개를 보여 준다. 특히 「저산록」은 세상에 쓰이지 못한 ‘쓸모없음’의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연 속에서 자족과 평정을 모색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그는 충주의 산수와 일상의 풍경을 시로 형상화하며, 세속의 부귀보다 자연의 고요와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처사적 세계관을 확립했다.

본 연구는 그간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홍중현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여, 조선 후기 은일 문학의 한 단면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1. 4.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홍중현(洪重鉉, Hong Jung-hyeon), 『천일재유고』(天一齋遺稿, *Cheoniljae Yugo*), 충주(Chungju), 「저산록」(樗散錄, *Jeosanrok*), 은일 의식(the seclusion consciousness)

The Seclusion and Reclusive Consciousness of Hong Jung-hyeon of Cheoniljae during His Chungju Retreat—Focusing on *Jeosanrok*

Lee, Saerom

This study examines the Chungju seclusion and poetic works of Hong Jung-hyeon (洪重鉉, 1660-1726), known by his pen name Cheoniljae (天一齋), focusing on how his retreat from public life shaped his consciousness of seclusion (eungeo) and reclusion (eunil). The research centers on *Jeosanrok* (樗散錄), the section of his collected works *Cheoniljae Yugo* (天一齋遺稿) that contains poems written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withdrawal, to trace the evolution of his inner world and self-awareness.

After being released from exile following the Gapsul Hwanguk (the political purge of 1694), Hong Jung-hyeon refused to return to government service and retired to Chungju, where he built the Cheoniljae studio and led a secluded life. His collected works consist mainly of poems composed during this period, revealing his transformation from political disillusionment to an introspective pursuit of peace and self-sufficiency. In particular, *Jeosanrok* vividly captures his feeling of being “useless” to the world and his subsequent quest for tranquility and harmony with nature. Through depictions of Chungju’s landscapes and everyday scenes, he established a cheosa-type worldview that valued inner freedom and the serenity of nature over worldly success or material wealth.

By illuminating the largely overlooked literary world of Hong Jung-hyeon, this study provides a concrete example of late Joseon reclusion literature, demonstrating that such works were not mere escapism but rather expressions of self-reflection and moral autonomy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